

기획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인 '알파미시(Alpamysh)'의 탄생지로 알려진 수르한다르요(Surxondaryo) 보이순(Boysun) 지역 전경. 사진 아래는 수르한다르요의 주도(主都) 테르미즈에 있는 알파미시의 동상으로, 신궁(神弓)이었던 그를 상징하는 청동활이 인상적이다. /타슈켄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국 위한 헌신과 투쟁의 전국 영웅... 주몽과 닮아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2) 기마민족 전사 '알파미시'



타슈켄트 = 윤영기 기자

"내 하얀 철갑 투구를 쓰고, 다이아몬드 칼을 칼집에서 뽑아 적을 쓸어버리겠다. 성난 낙타가 돼 울부짖고 분노로 타오르는 사자가 되겠다. 흉폭한 호랑이의 목을 따버리겠다."

<부족통일 나선 알파미시 출정기>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전설의 영웅 '알파미시(Alpamysh)'의 탄생지 보이순(Boysun).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에 있는 보이순을 찾아가는 길은 1000년 전의 인물인 알파미시를 만나려는 일처럼 아득했다.

보이순은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르요주에 있는 수도시로, 수도 타슈켄트에서 800km 떨어진 남쪽 끝자락에 있다. 도로 양쪽으로 제주의 오름 같은 낮은 동산으로 이어진 초원과 사막이 물결처럼 펼쳐지고, 그곳

부족 통일·목숨 건 사랑 등...우즈벡 국민이 가장 사랑

에서 풀을 뜯는 양과 말떼, 체판(형형색색 줄무늬가 있는 코트 같은 긴 상의)을 입은 목동, 나귀를 타고 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풍경이 실재없이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은 국토 면적이 한반도 두 배에 달하며 70%가량이 사막과 초원이고 나머지가 산이다.

보이순은 영웅 알파미시가 태어난 곳이다. 알파미시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 매우 닮았다. 둘 다 무예에 능한 신궁(神弓)이었고 역경을 딛고 부족을 통일한 건국 영웅이다.

우리의 나라의 면 소재지 규모인 보이순에서 전설에 등장하는 알파미시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주민들로부터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알파미시는 보이순의 한 부족이었던 쿤그라트족(族)이다.

그는 아버지인 바이부르(쿤그라트 족장)가 노년에 40여일 기도 끝에 신의 계시를 받아 태어난다. 7살 때 청동 활로 화살을 쏘아 아스카르 산 정상상을 무너뜨린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신혼 부부들이 알파미시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미뤄, 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알파미시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정혼자인 바르친이 가족과 함께 쿤그라트족을 떠나 칼미크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는 강제결혼할 위기에 빠진 정혼자 바르친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 입'이나 다름없는 칼미크로 들어간다.

칼미크 왕자 7명이 바르친에게 "자신들 중 한 명을 택하든지, 공유(共同所有)부인이 되라"고 협박한 탓이다.

바르친은 지략을 발휘해 무예대결의 승자를 남편으로 삼겠다는 서약을 한다. 알파미시는 4000보 밖에서 돌진 맞이기, 격투기 경기 등 무예대결에서 우승자가 돼 사랑을 쟁취한다.

전설에 등장하는 유목민의 전통 마상경기인 '올라크'(상대편의 염소 빼앗기 대회)와 '바이가'(말을 달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면 승자가 되는 경기)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재연되는 가장 인기있는 행사다.

알파미시와 칼미크 무사들의 출전장면은 과장의 극치다. "칼미크인 무사가 분노해 미쳐 날뛰던 풀을 녹이고, 얼음을 녹인다. 이 거인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면, 그 발자국 흔적에 한 가마니의 씨앗도 뿌릴 수 있다네"

바르친이 무예대결에 출전한 알파미시의 승리를 응원하는 대목은 시적이고 관능적이다. "치바르여, 내님의 말이여, 좀 더 힘차게 달려라. 하야 내 처녀 가슴이 너를 위한 고산의 목장이 되어 줄 것이다. 금강석 같은 다리를 가진 말이여, 1등으로 들어와라. 내 가슴의 눈 앞만 두 언덕을 밟아라."

알파미시는 바르친과 결혼한 뒤 귀향했으나 바르친의 아버지가 칼미크의 지배자 수르하일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벌에 나선다.

그의 출정기는 기마민족의 호연지기와 분노, 용맹이 드러난다. "내 하얀 철갑 투구를 쓰고, 다이아몬드 칼을 칼집에서 뽑아 적을 쓸어버리겠다. 성난 낙타가 돼 울부짖고 분노로 타오르는 사자가 되겠다. 흉폭한 호랑이의 목을 따버리겠다."

알파미시는 그러나 교활한 수르하일의 계략에 빠져 병사들을 모두 잃고 천길 구덩이 빠져 7년 동안 영어의 세월을 보낸다. 이 구덩이는 우즈베키스탄 무즈라바트스키 지역과 세라바트스키 지역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목민의 영웅을 형용의 세월에서 구한 것은 자명고(白鳴鼓·오각이 칠면목의 틀에서 울려퍼지는 북)를 쫓은 낙랑공주와 같은 인물이다. 칼미크 지배자 수르하일의 딸은 알파미시를 사모하게 되고 탈출을 돕는다. 알파미시는 구덩이에서 벗어난 뒤 수르하일을 죽이고 부족의 통치권을 손에 넣는다.

우라랄리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민속과학연구소 "알파미시는 우즈벡 민족의 독립과 통일, 민족의 정서를 운문과 산문의 형식으로 위어놓은 예술성 높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penfoot@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eonju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countries like Korea, Europe, and Japan,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Includes a '5th Anniversary' promo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Lotte Jeonju.